♧ 5면, 6면, 7면에 설교말씀 전문(全文)을 게재

진짜 구세주와 가짜 구세주를 분별하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예수의 정체를 밝히다

찬송:
- 선지자와 왕들 반열대로 서서
- 나의 맘속에 온전히
- 너 시험을 당해

말씀: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되면 열중쉬어 안 하고 마귀가 방해공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승리제단이 10년이 넘도록 이 역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함과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고로 모함이 있고 이제그대로 마귀새끼들이 여러 가지로 학대도 하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지, 이것이 마귀 역사라면 핍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편인고로 핍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찾아내기 위한 물세례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진짜 구세주와 가짜 구세주를 분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상의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면,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마귀 자식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맨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세례 줄 때 예수가 나와서 물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을 때 세례 요한이가 처음에 거절했다는 말씀이 그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슨 이유로 물세례를 베풀었느냐면 바로 구세주를 이제 찾아내기 위한 물세례였던 것입니다.

구세주를 찾아내기 위해서 물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었는데 당시에 구세주가 나오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가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것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레 되는 날 쉬셨다." 이제 "하루가 천 년과 같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고로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곤 구세주 만드는 일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엿새 동안 일을 했다는 말씀은 바로 6000년 동안 구세주 만드는 일을 할 것이라니까 바로 6000년 후에 구세주가 나온다는 얘기이지 4000년이 흐른 다음에 구세주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물세례를 줄 때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느냐? 네가 나한테 세례를 받을 자격이 너는 없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은 시골 목수 요셉의 아들인고로 신분이 양반의 신분이 아닌 천한 신분이었기에.. 그래서 이제그대로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요, 신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의 아들쯤 되는 그런 신분이니까, 바로 시골 목수의 아들이라면 바로 신분이 형편없이 천했기에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와서 물세례를 받겠다고 하느냐? 이제 차라리 네가 나를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는 말이 이제그대로 세례요한이가 6개월 먼저 나온고로 "형님 제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요 마음이 좋은 사람인 고로 그런고로 신분이 낮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자꾸 간청을 하니까, "그래, 해 주마." 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요즘에 그 침례교에서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들여보냈다가 이제그대로 올라오게끔 하는 그런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이가 요단강가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 한 명 물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적이 있었던 고로 그러한 물세례를 이제그대로 예수에게 물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올 때 공중하늘에서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공중하늘에서 들린 것입니다.

메시아(מָשִׁיחַ, Messiah) 조희성님
△ 본문 말씀을 설교하시는 당시에 촬영한 모습

세례요한의 신관과 기독교의 시발점

당시에 세례요한의 신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중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시에 마귀가 세례 요한의 신관이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계신 줄 알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걸 마귀가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그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고 공중하늘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줄 알고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할 것을 알고 마귀가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증거를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가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옳거니!' 시골 촌놈 목수의 아들, 이제 천한 신분을 가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고서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이제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하고 광야에서 외쳤다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발점입니다. 기독교가 이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고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하고 나가서 외치는 바람에 이것이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이제 성경이 그때부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써지게 되었고 이제그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써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지니까 이제그대로 예수가 구세주라는 초점이 맞춰져서 성경이 쓰여진고로 그런고로 성경이 전부가 다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제그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읽어 보면 "공중권세 잡은 신이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새끼다." 공중신이 마귀신이라고 쓰여 있고, 또 이제그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공중신은 악신이다." 그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한 신이 악신이요, 마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마귀 아들이라는 것이 쓰여 있으니, 이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봐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모았음이라."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쓰여 있는 말씀과 짝을 맞춰 보니까 바로 예수는 마귀의 아들이므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35억이 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 마귀새끼라고 쓰여 있으니 이제그대로 마귀새끼가 틀림없는 이제그대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고로 그런고로 오늘날 이제그대로 예수가 마귀새끼가 틀림없는 것은 그 혈통을 봐서도 정확합니다.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예수는 단 자손이 아니고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지마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요, 첩이 되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첩의 네 번째 아들로서 이제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장가를 갔는데 그만 그 자식도 못 낳고 큰아들이 죽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과부가 돼가지고 유다의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둘째 아들도 역시 자식도 못 낳고 죽었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붙었나 봐. 이제그대로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큰아들 잡아먹은 다음에 둘째 아들도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린고로 유다가 말하기를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라."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친정집에 가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혈통이 이제 예수의 그 혈통이 마귀 혈통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 걸 써 놓지 말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그대로 그 사실을 안 써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그대로 셋째 아들이 이제 커지기 전에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다에게는 자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씨가 마른 거죠. 그런데다가 자식을 또 낳을까 하고 이제 그 부인을 넘성댔는데 그 부인마저 죽었습니다. 유다 집안의 여자라고는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밖에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맹숭맹숭한 정신으로 이제 그 며느리 집에를 찾아갈 수가 없는 고로 술이 만취가 되도록 먹고 며느리 집에 찾아갔습니다. 며느리 다말이라는 집에 찾아가서 다말이라는 며느리 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을 할 정도면 그 개똥상놈의 새끼야? 그 양반의 새끼야? 이제그대로 그 마귀새끼야? 하나님 새끼야? 마귀새끼죠? 그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하고 동침할 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 이제그대로 습관이 바로 음란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관례가 있는 고로 그런고로 시아버지 하고 동침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어린아이를 벨 것을 미리 알고 이제 시아버지로부터 증표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동침했다는 그 증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고이 간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이야 이 다말이라는 과부가 점점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제 시아버지 되는 유다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당신 며느리가 음란죄를 졌으니 이제그대로 당신 며느리를 처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6면에 계속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9장 사사시대≫

7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손 이야기 ⑥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에게 보낸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만을 빼내어 동북방 쪽으로 멀리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지파 민족이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호해야할 민족으로 유다지파를 하나님께서 점지하셨음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단지파를 몰래 숨겨서 이 민족 가운데서 구세주를 배출해야 하는데, 만약에 단지파가 떠난 가나안에서 남아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여 모조리 소멸된다면, 아무리 히브리어를 쓰던 단지파가 알타이어를 쓰는 알타이어족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동방 땅끝 땅모퉁 해돋는 곳에서 은거해도 언젠가는 마귀에게 들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파 민족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역사하는 일들과 삼손의 출생 이후에 블레셋과 상대로 싸우는 삼손의 활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에게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단지파 민족은 갖출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어낼 때에도 이와 유사하게 권능을 보여주신 바 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앞세워 유다지파의 지도자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고자 했다. 첫 번째로 유다지파의 기업이 되는 베들레헴 성읍과 가까운 레히 들판에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쥐고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상대로 싸워서 모조리 전멸시켰을 때,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긴 유다지파의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지중해 해변가에 자리잡은 블레셋의 강력한 항구도시 가사에서 삼손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유다 진영의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약 60킬로미터나 되는 먼 길까지 가져왔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유다지파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는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유다지파에 이런 초월적인 괴력을 가진 장수가 있으니 감히 상대하여 쳐들어올 수 없게끔 사기를 꺾어 놓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삼손 장수가 이스라엘의 사사를 맡은 지 20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 나라의 미인계에 걸려들어 양쪽 눈알이 뽑힌 채 포로가 되어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때 삼손 장수는 블레셋 나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육감으로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려는 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기운이 쎈 천하장사였던 삼손은 육중한 신전 지붕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 두 개를 뽑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블레셋의 고관 장수들과 더불어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지금으로부터 약 3천 2백년 전이 삼손이 죽은 해이며 동시에 단지파 백성들이 이스라엘 소라 땅을 떠나 동쪽으로 출발한 해다.

이렇게 삼손 장수가 블레셋의 지도층을 몰살시킴으로써 훗날 유다지파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